



3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음 5월 27일) 제35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민이 행복한 전북, 백년대계를 다질 것”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2주년 맞아 언론 브리핑
▶▶ 관련기사 16면

6대 목표·14개 과제 등
향후 2년 도정 방향 제시

김 지사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을 것” 다짐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백년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직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소화하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히고 ‘활기찬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다져나갈 도정 운영방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년 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기후발전특구 지정 △사상 최대 기업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성과를 언급하며, 전북의 혁신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북만의 색을 칠하는 동시에, 전북자치도의 정책이 도민의 삶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열리며 백년대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민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로운 색을 칠하고 덧입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가운데)가 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취임 2주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상 최대 12.8조원 기업유치,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도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정책이 도민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평가받은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외에도 지난 2년 동안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유치, 농가 소득 역대 최초 5천만원대 진입,

농수산물 수출 5억불 돌파 등의 성과를 거둬내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지사는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2년에 이어 남은 임기의 마지막 1분 1초까지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2년 도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활기찬 전북’을 만들기 위한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 △풍요로운 농생명산업 선도지 △사람이 모이는 혁신 인제 허브 등 3개 목표와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드문드문 사회보호망 △풍요로운 문화와 여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등 3개 목표를 중심으로 더 선명하게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신산업 프

론티어 거점 조성, 기업하기 좋은 특별자치도, 돌봄공백 ZERO, 문화여가 1번지 등 세부적인 중점 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을 조성해 전북의 주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형 투자 지원제도부터 현장 소통강화,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전북에서 성공할 기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 푸드테크 연

구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농생명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력양성, R&D 지원 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인재 육성 허브를 조성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람과 기업이 모여 오래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북형 돌봄체계 및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 문화여가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분야를 발판삼아 새만금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 건설과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수변도시, 산업단지, 농생명 용지의 개발로 새만금이 ‘황금의 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도전’을 외치고 꿈꿨다”며, “우리가 시도한 모든 도전이 결국에는 우리를 세차게 밀어올려서 거대한 성공의 물결을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의 2년 동안,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2주년 언론브리핑 이후 김 지사는 전북의 주요 현안인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인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한인비즈니스 대회’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며 3년간 임기를 맞은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 맞이 시작

선유도해수욕장 등 8곳

5일부터 순차적 개장

사치도, 사전 준비 만전

해파리 쏘임 대책도 수립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대비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안 변산·고사포·격포·모항·위도 5개 해수욕장은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군산 선유도, 고향 구시포·동호 3개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140여 명을 선정하고, 안전감시탑,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법’에 따라 개장 전 수질 및 백사장 토양검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해파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대응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8월 동안 도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시·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 전 안전시설, 백사장 방치물건 철거 여부,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에 대해 보완·시정 조치한 바 있다.

각 시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경,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 및 방역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이 선유도 썬페스티벌(27일), 변산 비치파티(8월 2~4일), 변산 비치 시네마(8월 15~17일) 등 각종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해수욕장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 양성 공동협력

전북자치도·새만금청 등, 세계농업대학 설립 협약...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 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익산시(시장 정현율),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함께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목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글로벌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5개 기관이 공동협력하기로 약속한 자리이다. <관련사진 2면>

각 기관은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지원하며,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 생명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설립부지 조성 및 사용 협력,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조성에 필요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탄생할 세계농업대학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세계농업대학은 첨단 농생명 기술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원광대학교에서 보유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단과대학 설립 및 개발도상국의 우수농업 인력 양성,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대학 인증 추진 등으로 세계적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만호 기자

